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애착

Parent's Divorce And Children's Peer-Attachment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교육전공
석사 김 옥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조교수 이완정

Division. of Child Education, Inha Univ.

Master : Kim, Ok

Dept. of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Inha Univ.

Assis. Prof. : Lee, Wanjeong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divorce and children's peer-attachment. For this purpose, 79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se parents divorced answered the questionnaire which asked about the length of period after parents' divorce, present family type, and children's peer-attachment. The results showed that boys had lower communication level and higher estrangement level than girls among children who had experienced parents' divorce, that children who passed more than two years after parents' divorce had lower communication level than children who passed less than two years after parents' divorce, and that children from single father family had higher estrangement level than children from step parents family.

◆ key word: 부모의 이혼, 이혼 후 경과기간, 아동의 적응, 또래애착

I. 서론

아동기에 있어 부모의 적절한 도움과 교육은 장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주요한 바탕이 된다. 하지만 최근의 가정은 아동의 보호막이자 일차적 교육기관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이혼 및 별거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이혼은 성인들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이혼하는 부부의 72%가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통계청, 1999)을 감안한다면 이혼을 단순히 성인들이 자신의 결혼관계를 파기하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Wallerstein(1988; 1991)은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생활전반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관한 최근 국내 선행연구로 오은순(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생태학적 변인들이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아동의 적응을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지각보다는 아동 스스로의 인식이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더욱이 부모의 이혼에 따른 영향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학동 중기 자녀의 적응에 있어서는 부모의 이혼이 이 시기 아동의 중요한 접촉자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Jaffe(1997)는 학동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처지가 또래와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서 문제행동을 보이고, 다른 또래보다 슬픔, 스트레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낮아지며, 또래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아동기나 초기 청소년기 또래 애착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적절한 측정도구의 부재로 그리 활발하지 못했는데, 1980년대 후반 Armsden과 Greenberg가 또래애착 척도를 개발한 이후 보다 활

성화되어 국내에서도 또래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옥정, 1997)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학령중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Hetherington(1989)이나 Wallerstein(1988; 1991)은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한 논문에서 단순히 부모의 이혼 여부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이혼 후 시간이 지남 정도에 따라 혹은 부모가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지속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발달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선행 연구를 보면 Hetherington(1989), 오은순(1997) 등은 부모의 이혼 후 자녀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행동, 인지능력, 신체·정서적 안정 등에 있어 대개 남아가 여아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정현숙(1993)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생활의 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k와 그 동료들(1993)은 이혼 가정의 남아가 적응 과정에서 여아에 비해 분노, 발작, 다툼, 약한 자를 못살게 굴기, 속이기, 거짓말,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기 등의 반사회적 문제 행동과 불순종, 충동적·공격적 행동 등을 자주 나타내는 반면, 여아는 흔히 사춘기까지는 문제 증상을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이성관계에서 남성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영향은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부모가 이혼한 직후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부모의 이혼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겪는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다르다(Hetherington, 1979; 1989)는 것이다. 대체로 아동은 부모가 이혼한 직후 얼마 동안은 친부모의 갈등과, 한쪽 부모를 잃고 가정의 붕괴를 경험하는 등의 매우 고통스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적응 문제와 가정의 곤란해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아동은 전혀 무방비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Amato, 1989; 1993a; 1993b). 그러다가 부모의 이혼 후 수 년이 지나면 부모들은 좀더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오은순, 1997) 오히려 이혼을 유익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 역시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그 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편부모 가정에 익숙해진다(Thompson, 1991). 하지만 부모의 이혼은 장기적으로 한쪽 부모의 부재를 초래하고 이는 아동에게 성 역할의 혼란, 가족기능의 변질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만든다(Hetherington, 1979; 1989).

또한 부모는 이혼 후 다양한 가정형태를 구성하는데 대개 편모·편부 가정으로 남아있거나 재혼하여 재구성가족을 만들기도 한다. 부모가 이혼한 후 다시 구성한 가족형태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대개 편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망가진 가정”에서 산다는 사회의 낙인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편모 가정의 부모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직업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녀에게 더 많은 협력과 독립적인 행동방식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혼하지 않은 양친가정의 부모만큼 자녀에게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한다(Jaffe, 1997). 그리고 아동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와 잘 접촉하지 못하므로 편부모 가정의 아동은 심각한 부성실조나 모성실조를 겪게 된다(이규리, 1994).

이와 비교하여 재구성 가정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동과 계부모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많은 아동들이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에게 귀속감을 느껴 새로 생긴 계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친부모가 다시 합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재구성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Jaffe, 1997). 아동뿐만 아니라 계부모들도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계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안정된 가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갈등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한 후 새롭게 수립한 가정형태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성별, 이혼 후 시간 경과, 이혼 후 수립된 새로운 가족의 구성형태 별로 아동의 또래 애착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선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또래애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동의 또래애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현재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또래애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학령중기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만을 분리하여 표집할 경우 아동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가족문제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초등학교의 학령중기에 해당하는 5, 6학년의 학생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을 전수 추출하는 단계별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임의표집된 부천시 W초등학교 5학년 400명, P와 D초등학교 6학년 560명 등 총 960명의 아동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되었다고 판단되는 12부를 제외한 948부를 일차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현재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을 모두 추출한 결과 101명이 표집되었다. 다음으로 이들이 현재 친부모와 생활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니 부모가 사별한 아동(18명), 양친이 있으나 경제사정으로 친척과 생활하는 아동(3명), 기타 사유가 불분명한 아동(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22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총 79명의 자료가 최종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이 된 아동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아가 60.8%(48명), 여아가 39.2%(31명)로 남아가 다소 많게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이들 79명의 부모의 이혼시기별, 현재의 가족구성형태별 분포는 <표 1>에 제시

〈표 1〉 부모의 이혼 경험이 있는 아동의 기간별·현재 가족구성형태별 구성

()는 %

기간 \ 가족형태	편모가정	편부가정	재구성가정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	전체
부모가 이혼한 후 2년 미만	8(10.1)	5(6.3)	2(2.5)	1(1.3)	16(20.3)
부모가 이혼한 후 2년 이상	19(24.1)	19(24.1)	11(14.0)	14(17.6)	63(79.7)
전체	27(34.2)	24(30.4)	13(16.5)	15(18.9)	79(100.0)

하였다. 부모의 이혼시기는 선행연구(Hetherington, 1979; 1989; Wallerstein, 1988; 1991)를 참조하여 부모가 이혼한 후 2년 미만인 경우와 2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었고, 현재의 가족구성형태는 편부 가정, 편모 가정, 재구성가정(친아버지와 새엄마·친엄마와 새아버지로 구성된 가정), 그리고 부모와 생활하지 않는 아동(부모가 이혼한 후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친척과 함께 생활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표 1〉을 보면 조사대상 아동 중 부모가 이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20.3%(16명)였고, 2년이 지난 경우는 79.7% (63명)로 부모가 이혼한 후 2년이 지난 가정의 아동이 훨씬 많았다. 현재의 가족구성형태를 살펴보면 34.2%(27명)의 아동이 편모 가정의 자녀였고, 편부가정의 자녀도 30.4%(24명)이었으며, 재구성가정의 자녀는 16.5%(13명)이었다.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아동도 18.9%(15명)였다.

2. 연구도구

1) 가정환경 조사 문항

연구대상 아동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아동의 성별, 부모가 이혼한 후 경과한 기간, 현재의 가족구성 형태 등이다.

2) 또래 애착

아동의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옥정(1997)이 수정한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을 연구자들이 다시 요인분석으로 타당도 검증을 하여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척도 수정본(IPPA-R)은 총 25문항으로 상호신뢰(10문항), 의사소통의 질(8문항), 소외(7문항)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들은 먼저 문항의 내용이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에게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20명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아동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2문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23문항에 대해 다시 초등학교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해본 후 문항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대상으로 척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상호신뢰 하위차원에 6문항, 의사소통의 질 하위차원에 4문항, 소외의 하위차원에 5문항 등 총 16문항이 선정되었는데, 세 요인의 분산설명력은 50.19%, 전체 신뢰도는 .695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용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임의표집된 W, D, P 초등학교에서 조사대상 학년의 담임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수업시간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응답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 7.5를 사용하여

〈표 2〉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의 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값
상호신뢰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라고 믿는다 · 내 친구들은 나의 마음을 존중해 준다 ·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 해 준다 ·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	.862
의사소통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를 알아차린다 ·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생각해 준다 · 내 친구들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 내게 걱정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싶다	4	.707
소외감	내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게 짜증을 낸다 · 내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 친구들과 함께 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고 바보같이 생각된다 ·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낀다	5	.509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또래애착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요인분석으로 확인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측정하였다. 셋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의 차이를 t 검정으로 알아보았다. 넷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이혼 후 경과시기, 현재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또래애착의 차이는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후 F검증과 Duncan 사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별에 따라 또래애착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남자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아보다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질이 낮고, 소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행동·인지·신체 능

력·정서적 안정 등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오은순, 1997; Bank etc, 1993)와 일치된 것이나, 여아와 남아가 부모의 이혼에서 받는 영향은 성차 보다는 개인적인 성격특성이나 주변의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Hetherington(1989)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2.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아동의 또래애착

아동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의 시간에 따라 아동의 또래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지 2년 이상인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지 2년 미만인 아동보다 또래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 후 시간이 지나도 자녀의 적응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는 Jaffe(1997)의 지적과는 일치된 것이나, 부모가 이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동이 가정의 상황에 적응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오은순(1997)의 연구 결과나 Hetherington (1979; 1989)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표 3〉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

또래애착 하위차원	성 별	빈도	평균(표준편차)	t 값
상호신뢰	남	48	2.60(0.82)	-1.209
	여	31	2.84(0.83)	
	전체	79	2.69(0.83)	
의사소통	남	48	2.32(0.74)	-2.660**
	여	31	2.76(0.71)	
	전체	79	2.58(0.71)	
소외감	남	48	2.16(0.60)	2.048*
	여	31	1.90(0.46)	
	전체	79	2.06(0.56)	

* $p < .05$ ** $p < .01$

〈표 4〉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 시간경과에 따른 또래 애착

또래애착 하위차원	부모 이혼 후 시간경과	빈도	평균(표준편차)	F 값
상호신뢰	2년 미만	16	2.80(0.72)	.448
	2년 이상	63	2.67(0.86)	
	전체	79	2.69(0.83)	
의사소통	2년 미만	16	3.05(0.50)	5.537*
	2년 이상	63	2.46(0.71)	
	전체	79	2.58(0.71)	
소외감	2년 미만	16	2.10(0.33)	.632
	2년 이상	63	2.05(0.61)	
	전체	79	2.06(0.56)	

참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였음.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음.

* $p < .05$

3.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현재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또래애착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현재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이들의 또래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5〉를 보면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재구성가정의 아동보다 편부가정의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소희(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재혼가정의 아

동은 부모의 이혼과 이에 따른 부성실조나 모성실조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Visher와 Visher(1988)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초등학교 5~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별, 이혼 후 시간의 경과 정도, 현재의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아동의 또래애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 중 남아는 여아

〈표 5〉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현재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또래애착

또래 애착 하위 차원	가족구성형태	빈도	평균(표준편차)	F값
상호신뢰	편모가정	27	2.65(0.84)	.518
	편부가정	24	2.82(0.84)	
	재구성가정	13	2.76(1.09)	
	기타1)	15	2.53(0.56)	
	전체	79	2.69(0.83)	
의사소통	편모가정	27	2.57(0.74)	.359
	편부가정	24	2.69(0.72)	
	재구성가정	13	2.48(0.83)	
	기타	15	2.48(0.52)	
	전체	79	2.58(0.71)	
소의감	편모가정	27	1.98(0.54)ab	3.486*
	편부가정	24	2.32(0.47)a	
	재구성가정	13	1.82(0.44) b	
	기타	15	2.01(0.69)ab	
	전체	79	2.06(0.56)	

- 1) "기타"는 현재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을 의미함.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였음.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음.
 3) a. b. c는 Duncan의 추후검증을 나타냄. 동일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 < .05$

보다 또래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질이 낮고 소의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이혼하면 대개 남아가 여아보다 심각한 적응 문제를 겪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오은순, 1997; Hetherington, 198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나 남아의 적응이 더 낮다는 결과(정현숙, 1993)와는 상반된 것이다. 부모의 이혼 후 남이는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행동, 인지능력, 신체 및 정서적 안정 등에 있어 여아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Kindard 외, 1986). 또한 남아의 부적응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행동이 개선되었을 때도 또래 및 교사는 이들을 더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Hetherington, 1979).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남아의 또래관계를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 2년 이상인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 2년 미만인 아동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이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의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오은순(199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적응을 측정된 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오은순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응답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 적응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점을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부모의 이혼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동안 그들과 사려 깊게 대화를 나누어준 동정적인 부모나 성인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Wallerstein & Blakeslee, 1989). 이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는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며 때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

동이 장기적으로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를 구하고 자신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부모가 이혼한 후 현재 가족구성의 형태가 편부가정인 아동은 재구성가정의 아동보다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보다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주소희, 1991)와 일치된 것이다. 이혼할 경우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남자가 관계에 있어 양육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측면을 감당하도록 사회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혼자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자녀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issman & Allen, 1993). 특히 학동기 아동들은 발달특성상 또래 집단을 형성할 때 외모나 가정환경을 따지게 되는데 편부가정의 경우 살림까지 돌보아야 하는 아버지가 세심한 부분까지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자녀가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나, 의복·식생활에서 다른 아동들과 차이가 나기 쉬워 아동이 또래 집단에 끼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똑같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이라도 이들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이혼 후 시간경과에 따라, 현재의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아동이 또래와 맺는 관계의 질적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단일변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개인내적, 환경적 특성 변인도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Hetherington, 1989; Jaffe, 1997; Wallerstein, 1991)는 주장을 일부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연령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조사대상 표본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수가 79명밖에 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이혼이후의 가족구성형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지 않았다. 재구성가정의 아동보다 편부가정의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이 혼재된 결과일 수도 있다. 셋째, 부모의 이혼 직후 아동은 대개 지리적 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학교에 전학해 온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 아동의 또래관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환경변인을 찾아내어 좀더 상세화 시킨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전제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적응이라는 주제를 아동의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려 했으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 육 정(1997).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리(1994). 부모 이별경험과 아동의 사회성숙도와 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9). 인구통계연보. 통계청.
- 전숙영(1996).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1991). 이혼가정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1989). Family process and the competence of adolescents and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1), 39-53.

- Amato, P. R. (1993a).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mato, P. R. (1993b).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family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00-54.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58.
- Armsden, B. & Greenberg, M. T. (1987). *Attachments in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 interven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nk, L., Forgatch, M. S., Patterson, G. R., & Fetrow, R. A.(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Mediators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71-384.
- Bengston, V. & Robertson, J. F. (Eds.). (1985).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CA: Sage.
- Cooney, T. M. Hutchinson, M. K., & Leather, D. M. (1995). Surviving the breakup? Predictors of parent-adult child relations after parental divorce. *Family Relations* 44, 153-161.
- Frost, A. K. & Pakiz, B. (1990).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on adolescents: Time as a dynamic.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4), 644-554.
- Ganong, L. H. & Coleman, M. M. (1987). Step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8(1), 5-17.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rief, G. L. (1985). Single fathers reari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85-191.
- Hetherington, E. M.(1979). Divorce: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34(10), 851-858.
- Hetherington, E. M.(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Jaffe, M. L.(1997). *Understanding parenting*. Boston, MA: Allyn & Bacon.
- Kissman, K. & Allen, J. A. (1993). *Single-parent families*. Newbury Park, CA: Sage.
- Kurdek, L. A. & Fine, M. A. (1993). Parent and nonparent residential family members as providers of warmth and supervision to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2), 245-249.
- Marks, N. F. (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6(1), 5-28.
- Sim, H. & Vuchinich, S. (1996). The declining effects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408-427.
- Thompson, L. (1991). Family work :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181-196.
- Visher, E. B. & Visher, J. S. (1988). *Old loyalties, new ties : Therapeutic strategies with stepfamilies*. NY : Brunner/Mazel.
- Wallerstein, J. S. (1988). Children of divorce : Stress and developmental tasks.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J. S. (1991). The long-term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 A review. *Journal of the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0(3), 349-360.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1989). *Second chances :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Tichnor & Fields.
Warshak, R. A. (1992). *The custody revolution: The father factor and the motherhood mystique*. NY: Poseidon Press.
Zill, N. Morrison, D. R., & Coiro, M. J. (1993). Long-

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djustments, and achievement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 91-103.